도교육청, 올해부터 달라진 학생부 기재방식

모든 교외賞 어떠한 항목도 기재 불가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몇가지 바뀌었다.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는 4월,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에 관한 안내 자료를 냈다.

-권한관리의 강화

학생부 나이스(NEIS) 권한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나이스 권한 부여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한다.

학생부 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정대장은 반드시 4단계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봉사활동실적 누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이 가능하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서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변화해 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핵심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되 과도한 내용 입력, 지난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 내용 구성은 자제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가 불가하며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기재가 가능하다.

-모든 교외상은 어떠한 항목도 기재 불가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가 불가하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고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이수시간은 본인이 이수한 시간만 입력하며 어떠한 사유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한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또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또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경력만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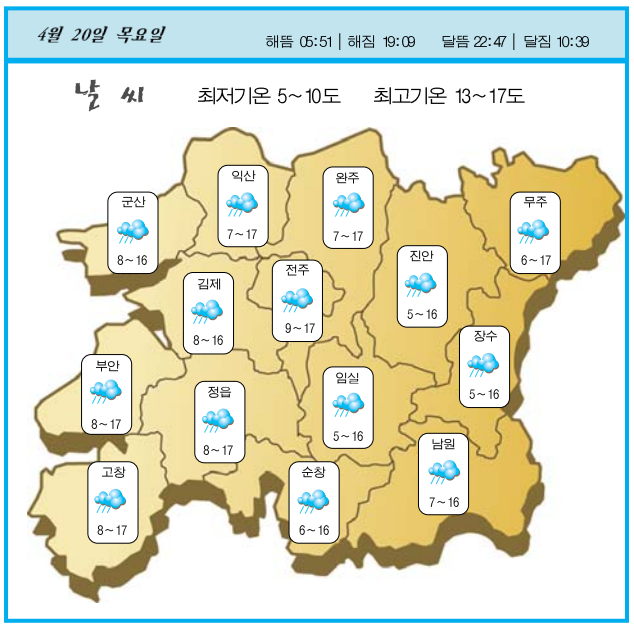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 입력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정해은 기자



에코시티 등 전주 도시개발지구내 학교설립 '탄력'

도교육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 2020년 3월 개교 예상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전주 에코시티내 전주화정초등학교와 화정중학교, 전주 만성지구내 만성중학교(가칭 양현초 옆) 설립 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19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차질을 빚던 전주 도시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설계공모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0년 3월 개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직접 전북교육청을 찾아 김승환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에코시티 개발지구 등 신도심 학교 신설과 관련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었다.

또 그동안 전북교육청, 전주시, 전주교육청,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에코시티 및 만성지구 내 학교설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실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교육부 설득작업을 병행해 왔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화정중학교 및 만성중학교 조건부 승인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개교 시까지 전주시내 구도심 중학교 각 1개교(총 2교) 적정규모화 추진, 화정초등학교 조건부 승인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개교 시까지 인근 소규모학교를 포함한 6교 적정규모화 추진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화장품 원료 기술전 참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박순종 전주부시장) 산하 바이오뷰티개발센터는 첫 공식 활동으로 전주시 바이오뷰티 협의회 구성 기업체 및 연구원 직원 등 200여명과 함께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7 국제화장품 원료 기술전'를 참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시내 2곳의 중학교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로 각각 이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한편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전체 1만3,000여세대 중 7,400여 세대가 2019년 입주까지 예정이며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솔내초등학교 1개교 뿐이다. 도교육청은 입주 규모를 감안할 경우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1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재검토 결정이 난 상태였었다.

또 전주 만성개발지구는 아파트 5,312세대를 포함한 5,815세대 입주 규모로 개발 중이며 현재 학교용지는 초1개소, 중1개소 2곳이 있으며 2019년 3월 초등학교 개교가 결정된 상태다. 또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라 만성중학교가 2020년 3월 개교할 수 있게 됐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270억원 규모 LINC+ 사업 선정

전북대학교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중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전북대를 비롯한 55개 4년제 대학을 선정, 모두 1조6,3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대는 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와 자부담 등을 합해 272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와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국내 대학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전북대가 이번 LINC+ 사업을 통해 이를 확산·지속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는 '혁신을 선도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어울림 산학협력으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와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괄기구인 'CBNU-ICC'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연계형 산학협력 협의회 구축, 지역기업 및 연구소와 취업연계기반 교육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 공동연구과제 도출에서 사업화까지 One-stop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사업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한다.

전북대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전북대는 지난 5년의 LINC사업을 통해 특화된 산학협력 시스템을 발굴해 전국으로 전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전북대만의 특화된 시스템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수행평가 40% 이상 반영

전북도교육청의 2017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과목별 학기 단위 성적 총점의 40% 이상이다.

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교과는 지필평가에서 서답형 2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 외에 과제 제출 방식의 수행평가는 지양해야 하며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형 수행평가도 하지 않아야 한다.

지필평가 횟수는 학기당 2회로 하되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학기단위 과목 총점의 70% 이상인 교과 ▲시수가 적은 교과(1단위) ▲실기비중이 70% 이상인 교과 인 경우에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교과 관련)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해은기자